

## 신길동 주민 배기한이 들려주는 여의도 광장 이야기

배기한은 1947년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태어났다. 여의도 개발이 시작될 무렵인 1968년 상경해 영등포구 신광동(지금의 신길2동)에 정착했다. 그는 여의도 모래밭에 밤섬 주민들이 땅콩밭을 일구고, 공군비행장이 있던 때부터 현재까지 50년 가까이 셋강 건너 여의도에 드나들었다. 여의도에 직접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의도 개발과정을 전부 지켜본 산증인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처음 여의도광장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였던 1970년대 후반이었다. 당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던 여의도광장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의도광장 새마을봉사대'가 설립되었다. 새마을봉사대의 대장으로 부임한 그는 이전까지 광장에서 자전거 대여업을 하고 있던 상인들, 광장 주변을 배회하던 전과자들을 모아 새마을봉사대를 결성하였다. 새마을봉사대는 여의도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를 빌려주는 사업과 광장 주변 치안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새마을봉사대는 여의도광장을 주무대로 활동했기에 '국풍81' 이산가족 찾기 등 현대사의 장면들과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언제나 함께 있었다. 특히 '이산가족 찾기' 당시 여의도광장에 설치된 천막과 포스터의 상당수는 새마을봉사대 대원들이 손수 제작한 것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문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여의도광장의 모습을 생생히 들려주었다. 또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대여 사업 이야기를 통해 당시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여가문화공간으로서 여의도의 공간적 특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금의 여의도공원이 젊음의 광장이었던 시절, 여의도광장을 주름잡던 그의 이야기는 여의도의 역사뿐 아니라 여의도로 모여들었던 당시 사람들의 열망을 보여준다.

## 1. 개발 전후의 여의도와 여의도광장

밤섬 주민들이 나간 후에는 우리가 여의도의 산증인이죠.

내 원래 고향은 경북 고령이에요. 1968년에 서울 신길동에 올라와서 이 동네에 터 잡고 내내 여기 살았어요. 그때는 이 동네를 신광동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서울 처음 왔을 때 여의도는 땅콩밭이었어요. 지금 신길역 쪽에 셋강이 있잖아요. 그때는 셋강에 다리도 없어서 군인들이 쓰는 \*아나방이라고 하는 걸 놓고 강을 건너다녔어요.

\*아나방 : 공사장에서 쓰는 타공 철판. punched steel plate라고도 하고 pierced steel planking mat라고도 한다. 혈판(穴板), 즉 구멍 뚫린 널빤지를 일본어식 발음으로 말한 것. 2차 세계대전 당시 활주로로 이 철판이 쓰였다고 한다.

아이들이 셋강에 가서 목욕도 하고 강 건너 여의도 가서 땅콩 서리도 해 먹고 그랬죠. 여의도에는 공군부대랑 공군비행장도 있었어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그런 비행장은 아니고 모래밭 위에 아나방을 깔고 그 위로 비행기가 뜨고 내렸어요. 여의도 개발 전에 밤섬에 사람도 살았어요. 여의도 땅콩 농사는 다 그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밤섬 동네가 참 컸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 해마다 옛날에 같이 지내던 이웃들과 일가친척들이 다 모여서 제도 지내고 행사도 해요.

\*밤섬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강의 가운데에 있는 섬으로 현재 서강대교가 섬 위를 관통하고 있다. 밤섬은 1968년 2월 10일 여의도 개발의 일환으로 폭파되어 당시 62가구 443명의 원주민은 마포구 창전동과 와우산 중턱으로 집단이주하였다. 밤섬 주민들은 자신들의 섬에서 해오던 마을굿을 창전동의 부군당에서 재현하여 현재까지 전승하고 있다.

밤섬 주민들이 나간 후에는 우리가 여의도 산증인이죠. 지금 여의도 사람들은 새로 온 사람들이라서 옛날 일은 잘 몰라요. 우리는 셋강만 건너면 바로 여의도니까 저녁에도 자주 놀러 가곤 했어요.

한강이 개발되면서 뚝도 쌓고, 축대로 쌓고, 길도 만들면서 여의도가 지금 같은 모습이 됐어요. 처음에는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들어가는 길하고 수산시장 가는 길 그 두 길만 있었는데 88서울올림픽 하면서 올림픽대로가 생겼어요. 마포대교 놓기 전에는 그 밑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포대교는 놓은 지 얼마 안 됐죠.

\*서울 마포구 용강동(龍江洞)과 영등포구 여의도동(汝矣島洞)을 잇는 대교로 1968년 2월에 착공하여 1970년 5월에 준공되었다.

서여의도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게 순복음교회하고 반도호텔이었는데, 반도호텔은 맨하탄호텔로 이름을 바꿨다가 지금은 켈싱턴호텔이 됐어요. 그 옆에 여의도호텔이라고 조그만 호텔이 하나 있고, 보훈회관이 있었어요. KBS 뒤에는 보이스카우트 본부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KBS 연구동으로 쓰는 건물이 당시에는 의원회관이었는데 그걸 KBS에 팔고 지금 의원회관은 의사당 안에 새로 지은 거예요.

지금 KBS 앞 주상복합인 ‘더샵’ 자리에 동아일보 사옥이 있었고 그 뒤에 KBS를 지었죠. 그거 말고는 뭐 허허벌판이었어요. 여의도는 진짜 추웠어요. 겨울 기온이 여기 신길이 한 15도라고 하면 여의도는 한 8~9도밖에 안 됐었어요. 4~5도 정도 차이가 났어요. 강바닥이라서 그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광장은 안보를 위한 비행기 활주로 역할을 하도록 했어요.

여의도광장은 군사시설로 만들어졌어요. 경비행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활주로 역할을 한 거죠. 그 때문에 마포 쪽에는 높은 건물 허가가 안 났어요. 광장 폭이 2km 정도 됐는데 양 끝에 군경합동으로 하는 군인검문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지하병커도 거기 있었어요. KBS와 동아일보사 사옥 자리 사이로 내려가면 그 밑으로 비상통로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죽 걸어 나오면 건너편 지하도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광장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할 때 보안대가 그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자금 금융센터 쪽에는 국군의 날 행사 때 VIP가 앉는 로얄 박스가 설치됐어요. 거기 단상을 지어놓고 사열을 받는 거예요. 행사 끝나고 철거하면 평평한 녹지죠. 그 자리에서부터 여의도 환승센터 근처까지 지하공간이 뚫려 있는데 그 밑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사무실처럼 소파도 있었어요. 광장 만들면서 왜 그걸 만들었느냐. 유사시 이북이 폭격을 하게 되면 VIP가 피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 길로 내려가면 영등포 쪽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그 위를 첩관으로 해놨었죠. 광장 중앙에는 또 안보전시관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거기 비행기도 전시해 놓고 김일성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도 놔뒀어요. 김일성이 6.25 때 내려왔다가 철수할 때 못 타고 간 거라는데, 운전석 자리와 뒷자리가 방탄유리로 막힌 그런 차였어요.



인터뷰증인 배기한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군인들 다 내보내고 기반시설을 만들어 분양을 했는데 광장은 광장대로 유사시 안보를 위한 비행기 활주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했어요. 여의도 가운데에 넓은 공터로 남겨둔 거죠. 1970년대 여의도에 그렇게 광장을 만들어놓고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광장 주변은 죄다 잡상인들이었어요. 토요일만 되면 떡볶이부터 술까지 뭐 옛날 노점 하는 사람들이 파는 식으로 하는 그런 장사들이 들어왔죠. 여름철에는 팔빙수까지는 아니고 얼음 갈아서 먹는 그런 균것질거리도 팔고, 파배기 같은 주로 불량식품들을 팔았어요. 젊은 애들이 애인하고 놀러 오면 오징어 같은 것도 많이 사 먹고요. 여름에는 광장 주변이 시원하니까 사람들이 밤늦도록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 모여서 밤새도록 술 먹고 그랬어요. 참 술맛도 낫어요. 저녁에 광장 뒤편에 가면 시원하니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마실 수 있었어요.

## 2. 새마을봉사대 창단

여의도광장 주변이 완전히 우범지대였어요.

1970년대 말에 여의도광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자전거 영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광장이 넓은데 텅텅 비어있으니까 거기서 사업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자전거 몇 대, 롤러스케이트 몇 개를 놓고 대여업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끼리도 알력다툼이 있었어요. 서울시에서도 그걸 불법 노점이라고 단속을 하니깐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광장이 자전거 타고 놀기 좋으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뭐 남녀문제 같은 것도 있고, 사건사고가 많고 범죄도 자주 일어나서 사람들 원성이 많았어요. 그때는 여의도광장 주변이 완전 우범지대였어요. 노점 하는 사람들, 전과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루에도 사고가 몇 번이 나는지 지하도에서 대낮에도 막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지금 산업은행 자리. 거기가 예전에는 ‘나무학교’라고 서울시에서 묘목을 키우던 공터였어요. 지금 수출입은행에서 지하도 있는 곳까지 전부 묘목을 키우던 자리인데, 그 묘목이 자라서 커지면 나쁜 짓 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 잘 안 보이는 데서 하룻밤에도 사건이 여럿 났었어요. 그때 시범아파트 있던 저 아랫동네 사람들은 이쪽으로는 오질 않았어요. 무서워서. 지방에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학생들도 있었어요. 와서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했죠. 주변 노점에서 사람들이 밤새 술을 먹고 그러니 사고가 안 나겠어요?

도시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봉사대가 조직됐어요.

그때가 김성배 시장 때예요. 영등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우리가 여의도광장을 그냥 방치해선 안 된다.” 해서 도시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광장 정비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광장 주위에 배회하는 사람들 일자리도 마련해주면서 그 인력으로 치안이나 잡상



인. 노점단속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도시새마을사업 예산을 받아서 광장 치안을 관리하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새마을봉사대가 조직됐어요. 원래 장사하던 사람들을 그대로 참여하게 하고, 주변에 전과가 있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이 사람들을 갱생시키는 차원에서 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경찰서에서도 구청에서도 못 하는 일인데 내가 하겠다고 했죠. 대원들 교육은 새마을협회에서 책임을 져 달라고 하고 새마을봉사대를 모집했어요. 가서 보니까 쓰리꾼(소매치기), 폭력배, 징역 갔다 나온 사람들, 개척단에 갔다 온 사람들 뭐 할 거 없이 전국 범죄자들이 거기 다 모였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보고 “조폭 대장은 김태춘이가 아니라 배기한”이라고 했어요.(웃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새마을 본부에서 일주일마다 새마을 교육을 했어요. 처음에 모인 사람들이 240명 정도 됐는데 새마을 교육을 계속 시키니 귀찮잖아요.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던 사람들이 그걸 버틸 수 있겠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125명이 됐어요.

우리 대원들을 준비시키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해도 되겠다’ 싶을 때 정식으로 발대식을 한 게 1982년 4월 28일이었어요. 그날 ‘여의도광장 새마을봉사대’라는 명칭으로 광장에서 발대식을 했어요. 발대식 할 때 인원이 한 150~160명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봉사대 창단 이틀 전 하필이면 의령 궁류지서 경찰관이 총기 난사를 해서 사람들 60여명 정도를



여의도광장의 모습(1978.10)

당시 광장의 이름은 516광장으로, 1979년 유신정권이 무너지면서 여의도 광장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죽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국회 내무분과 위원장인 김종호 씨가 그 현장에 갔다가 헬기 타고 와서 우리 발대식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새마을 사무총장이 전경환 씨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이었는데, 새마을 사업으로 이런 걸 하는데 사무총장도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도 사건현장에서 같이 헬기 타고 와서 참석하고요. 그날 창단식 끝나고 우리 새마을봉사대원 두 사람이 합동결혼식도 올렸어요. 행사 때문에 모인 사람들을 하객 삼아서 김종호 의원이 급조로 주례를 서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도 아들 손자 낳고 잘 살아요.

### 3. 새마을봉사대 운영

새마을봉사대는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대여와 광장 주변 정리를 맡았어요.

새마을봉사대 내부 규율은 군대처럼 엄격했어요. 우리 대원들은 광장 근처에서 술도 안 마셨어요. 밖에서 먹는 건 모르지만 광장 주변에서는 내가 절대 술을 못 먹게 했어요. 옷도 우리는 제복을 입었어요.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헌병들, 그 사이드카 타는 사람들처럼 흰 셔츠, 녹색 바지에 모자는 새마을 모자를 쓰고 광장 주변을 다 돌았죠. 우리 대원들은 일을 하면서도 주기적으로 새마을교육을 받았어요. 새마을본부에서 지도자들과 같이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광장 안에 자전거 대여소 열두 군데, 롤러스케이트 대여소 열 군데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 되는 자리가 있고 잘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입구 쪽에 자리 잡은 곳이 장사가 더 잘 돼요. 광장이 넓으니까 입구부터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지 안에 들어와서 빌려 타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구 부근에는 대원들을 대여섯 명 모아서 한 점포를 주고 가운데부터는 두어 명씩 모아서 한 점포씩 배정해줬어요. 사람들 많이 와서 돈이 벌리는 곳은 일하는 사람 머릿수를 많이 붙이고 덜 되는 데는 사람을 적게 배치한 거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소위 동업자예요. 그 점포에서 버는 것을 이 사람들끼리 나눠 가지는 거죠. 새마을봉사대에서 난 수익은 누구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백만 원을 벌든 천만 원을 벌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평등하게 운영이 되죠. 다만 사무실 전기세도 내고 해야 되니까 한 업소당 만 원씩 걷어서 사무실 운영비를 썼어요. 또 팀마다 장사를 안 하고 있는 인원을 차출해서 순찰을 돌았어요. 그럼 자기 점포에 남은 사람들이 벌여놓은 돈을 나눠서 임금으로 가져가는 거죠. 순찰 도는 사람들은 잡상인 같은 사람들 단속을 해요. 우리는 광장 근방에서 술 팔고 이런 거는 절대로 못 하게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지하도 순찰을 계속 돌았어요. 우리 새마을봉사대 덕에 광장이 깨끗하게 유지됐어요. 일요일이면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가니까 월요일에는 쓰레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우리 대원들 40~50명이 KBS에서부터 2열 횡대로 서서 가는 거예요. 저 마포 쪽 끝까지 자기 주변 쓰레기를 주워서 가면 깨끗하게 되는 거죠.

1980년대가 여의도광장의 전성기였어요.

1980년대에는 여의도광장에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일요일 같은 때는 한 10만 명은 나왔을 거예요. 바글바글했죠. 그때는 놀 곳이 마땅치 않아서 사람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다 여기로 왔어요. 보따리를 싸 들고 지하철 1호선 타고 와서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자전거도 타며 노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경기도 위성도시 사람들도 다 와서 주말에는 아주 대단했어요. 1980년대가 여의도광장의 전성기였어요. 진짜 자전거 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당시 삼천리 자전거에 안내 표지판 몇 개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두말 않고 해줬어요. 자전거 판매율이 올라가려면 자전거 타기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그 유행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당시에 자전거 탈 데가 광장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그 명맥을 이어줬다는 걸 자전거 회사에서도 인정한 거죠. 자전거 타겠다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징그러운 정도였어요. 여의도광장이 10만 평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찾길 빼면 모인 사람이 7만~8만 명쯤 됐을 거예요. 그 넓은 공간에 사람이 꽉 찼으니까 말 다 했죠.



올림픽 환경미화새마을봉사대(1987)

자전거 한 대에 4만 원 정도 했었는데 우리가 한 시간에 천 원씩 받고 빌려줬어요.

봉사대 창단한다고 했을 때 말이 많았어요. “왜 돈을 많이 들여서 광장을 만들어놓고 저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느냐”는 거죠. 주말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끼리 부딪칠 정도로 광장에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때만 해도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금방 부자 되겠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수입은 좋았어도 자전거 분실율도 높고 유지비용도 엄청 들었어요. 당시 돈으로 자전거 한 대에 4만 원 정도 했었는데 우리가 한 시간에 천 원씩 받고 빌려줬어요. 롤러스케이트도 똑같이 한 시간에 천 원이었죠. 자전거가 롤러스케이트보다 비싸기도 비싸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더 좋았어요. 우리 봉사대가 점포당 아무리 못해도 100대씩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대여해줄 수 있는 자전거는 한 1,30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말이면 자전거가 모자랄 때가 많았어요. 늦게 오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빌릴 수 없을 정도였어요. 평일에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으니까 주말에 오는 사람들을 감당할 만큼 자전거를 보유하지는 못했죠.

우리 대원들 능력으로 그만큼 자전거를 살 수도 없었어요. 4만 원씩 열 대만 해도 4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못 타는 사람들이 배우려고 빌려 타다 보면 금방 망가져서 1년에 한 번은 교체를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되면 매년 400만 원씩은 들여야 한다는 건데 그때

돈으로 400만 원이면 얼마나 컸어요. 롤러스케이트도 한 점포에 100대씩은 있었어요. 그런데 롤러스케이트를 빌려주면 안전모 분실이 또 많았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안전모를 안 써도 되는데 롤러스케이트 타는 사람은 꼭 쓰고 타야 돼요. 주로 어린아이들이 배우는데 타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안전모가 답답하니까 벗어서 어디다 내버리고 안 가져오는 일이 잦았어요. 우리 대원들하고 싸움도 나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거 얼마 주고 사는 건데 잃어버리고 안 가져오면 어떡하느냐고. 그러고 이튿날 찾아보면 광장 주변에 없어요. 집에 가져가 버렸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엄청 많았죠.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내가 지방까지 자전거를 찾으러 다녔다니까요. 우리가 빌려줄 때는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받고 빌려주는데 학생증을 위조해서 말기고 타고 가버리거든요. 우리 자전거에는 다 표시가 있어서 봉사대원들은 딱 보면 저게 몇호 집 자전거다 하는 걸 딱 알았어요. 지방에 찾으러 가보면 자전거 자기가 샀다고 하고 부모님한테 돈을 받은 애들도 있어요.(웃음) 우리가 가서 부모가 알게 되면 엄청 혼나는 거죠.



여의도 광장에 모인 인파(1982)  
출처: 동아일보 1982년3월1일

겨울철에는 셋강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어요.

가장 힘든 게 겨울철이었어요.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자전거 타러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때는 생계가 어려워져요. 우리 봉사대 사람들은 겨울에 사람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하면 아예 영업을 안 나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새마을본부에 찾아가 서울시랑 내무부에 가서 쌀 좀 얻어 달라고 손도 벌리고 그랬어요. 양털 점퍼 같은 것도 요청해서 우리 대원들 다 입히고, 그래도 우리 대원들을 놀게 할 수는 없어서 셋강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어요. 몇 명씩 조를 짜서 여자 대원들은 떡볶이 같은 걸 팔게 하고, 스케이트 날 갈고, 얼음을 고르게 하고 해서 겨울을 견뎌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겨울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다 이탈해서 없어요. 배고파서 떠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스케이트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셋강이 얼마나 넓어요. 스케이트장도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영등포시장 로터리에서부터 셋강다리 옆에 귀신바위 있는 데까지 물이 찼으니까 규모가 컸지요.

\*귀신바위 : 영등포구 신길동 24번지 북단 올림픽대로변 셋강 가에 소재한 바위, 이곳에서 놀던 사람들이 주위 풍경에 도취되어 실수로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많아 바위에 귀신이 붙었다고 하여 귀신바위라고 불렀다.



그렇게 우리 봉사대 식구들이 겨울에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우리 대원들이 스케이트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거예요. 스케이트 가지고 온 사람들은 자기 스케이트 타고, 맨 몸으로 오는 사람들은 우리 대원들이 대여 해줘서 탔어요.

#### 4. 여의도광장의 사건들과 새마을 봉사대

봉사대가 정말 힘들게 치렀던 첫 행사가 ‘국풍81’이었어요.

처음 새마을봉사대 발족할 때 광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다 책임지기로 했어요. 광장에서의 안전사고, 청결, 질서 계도가 다 우리 몫이었어요. 광장은 말하자면 특별구역이었어요. 광장 안뿐 아니라 그 주변 구간, 국회 앞도 전부 우리 소관이었어요. 여의도의 치안과 안전이 다 우리 소관이었다고 보면 돼요. 사람이 많으니까 노점상들도 구름 때처럼 몰려왔어요.

그러면 우리 대원들이 차 대놓고 지키고 있다가 전부 실어다 구청 창고로 보내곤 했어요. 광장 안에 새마을본부에 협찬금을 내고 영



국풍81 개막식

업하는 매점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보호해줘야죠. 광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도 우리가 정리하고 수습하는 일을 했어요. 광장에 행사가 좀 많았어요? 우리 봉사대가 정말 힘들게 치렀던 첫 행사가 ‘국풍81’이었어요. 그때 정말 제일 고생했어요. 하도 사람이 많아서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온 뚝방(뚝)이며 셋강 바닥까지 다 장사꾼이고 노점이었어요. 그때가 군부 시절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도 사회가 시끄러우니까 여의도광장에 가둬놓고 여기서 실컷 먹고 실컷 싸움도 하고 하라고, 뭐 법도 없고 ‘거기서 아주 실컷 놀아라.’ 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런 잔치, 그런 난장을 볼 일이 없잖아요. 불만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술도 실컷 먹고, 싸움도 실컷 하고, 여기서 스트레스 풀고 가서 폭동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었겠죠. 그 주변이 온통 술 파는 장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안을 정리하기가 엄청 힘들었죠. 우리 대원들이 서너 명씩 한 조가 돼서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녔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전기로 “여기 사고 났다.” 하면 금방 벌떼같이 모였어요. 그 안에서는 누가 무슨 사고를 쳐도 우리 대원들한테 수에 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 대원들도 깡다구가 워낙 좋았거든요. 평생 거칠게 살다가 마음잡고 사는 사람들인 걸요. (웃음) 하여튼 그때 ‘국풍81’ 그 잔치한다고 우리는 즐기기는커녕 다 골병들었어요.



예전에는 해마다 국군의 날 행사를 엄청 크게 했어요

국군의 날 행사를 그날 하루하고 마는 거면 괜찮은데, 여름부터 거의 석 달 가까이 광장에서 연습을 했어요. 군인들이 맨 처음에 오면 셋강, 광장 주변, 고수부지에 텐트를 쳐요. 그럼 ‘이제 시작하는구나’하죠. 부대가 상주하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야전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7월 말 무렵이면 행진 연습을 위해서 탱크 같은 장비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앉는 로얄 박스 같은 곳들을 다 점검하죠. 국군의 날 행사를 하면 군인들이며 사람들이 먹을 음식 같은 게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광장 관리를 하다 보니 광장에 들어와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단체에서도 자리를 달라고 하고 저 단체에서도 자리를 달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떼쓰고 행패 부리는 것들을 처리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국군의 날 행사 당일엔 우리 봉사대원들이 광장에서 영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영업은 생계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날은 고수부지에 가서 영업을 했어요. 고수부지에서도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광장에서만큼 영업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어요. 대원들을 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라도 영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국똥81 행사모습



건군36주년국군의 날행사모습(1984)



수도방위사령부 헌병 기동대도 여의도광장에서 사이드카 타는 연습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랑 우리 새마을봉사대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광장에서 훈련할 때 서로 많이 도왔어요. 광장에서 그 사람들이 훈련하는 동안 우리도 영업을 해야 했으니까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죠.

광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전거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동대 시보들도 오토바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다 보니 잘못해서 부딪치거나 사고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위험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줘야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훈련할 수가 있었어요. 옷 다 차려입고 헬멧 쓰고 평벌에서 훈련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보기에 멋있어도 훈련할 때 보면 아주 팔죽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 훈련 다 마치고 수료할 때는 우리가 돼지를 잡아주기도 했어요.

이산가족 찾기 때 붙은 벽보 중 절반은 우리 대원들이 써줬을 거예요.

1983년에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 때도 우리 대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453시간 45분 동안 KBS가 생방송으로 방영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다. 이산가족을 찾는 행렬이 예상을 뛰어넘어 장사진을 이루자 KBS는 모든 정규방송을 취소한 채, 5일 동안 '이산가족찾기'라는 단일 주제로 릴레이 생방송을 진행하였다. 이기간 동안 가족을 만나기 위해 여의도를 찾은 이산가족만 5만여 명에 달했고, 총 5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였다.

처음에 KBS가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 두 명씩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러다가 사람들 많이 오게 생겼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대 차원에서 아예 텐트를 쳐놓고 가족 찾으러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우선 대원들 중에 좀 똑똑하고 글씨도 예쁘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을 몇 뽑았어요. 그리고 광장 저 끝, KBS 앞쪽에 텐트를 쳐놓고 '이산가족 찾기 대필해드립니다'하는 문구를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날이 더운 때였어요. 사람들이 힘들니까 우리 텐트에 불러서 좀 쉬게 하고 우리 대원들이 음료수도 사다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대원들이 가족을 찾는 내용을 듣고 대필을 해줬어요. "예전에 이북 어디서 살았고..."하는 사연들을 써주고는 "여기다 붙이시오." "잘 보이게 땅바닥에 붙이시오."하는 안내까지 맡았어요. 이렇게 해서 텐트를 쳐놓은 광장 아스팔트 위가 전부 다 사람 찾는 포스터로 덮였어요. 동아일보 자리 앞까지 포스터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한두 명씩 방송을 통해서 가족을 찾았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전국에서 너도나도 이산가족을 찾겠다고 와서 포스터를 붙여놓은 거예요. KBS 담벼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KBS 앞 광장에도 울타리를 쳐서 방(포스터)을 붙일 자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이산가족 찾기 종이를 써주면 사람들이 그 벽에 가져가서 붙였어요. 아마 이산가족 찾기 때 붙은 벽보 중 절반은 우리 대원들이 써준 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 찾기 열풍은 맨 처음 우리가 일으켜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이어지는 동안 원래 그 자리에서 영업하던 대원들

이 자리를 빼고 다른 곳으로 옮겨줬어요. 한 구역에 한 사람씩만 남고 전부 이산가족 찾는 사람들을 도와줬죠. 그때 거기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 상봉하라고 우리가 자리를 빼줬어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혼장을 받았어야 해요. 그렇지만 우리 대원들 중에 TV나 신문에 나온 사람들은 한사람도 없었어요. KBS가 공개홀에 사람 모아서 방송하는 동안 바깥에서 일은 우리가 다 했거든요. 나중에 방송을 보니 누군가는 목련장도 받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고생을 했지만 상은 하나도 없었어요. ‘재주는 꿈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더니 그 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이산가족찾기방송당시 KBS본관 앞 여의도광장 출처: KTV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은 일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가족을 찾으러 오면 옛날 이북에서 같은 동네 살던 사람들끼리 알음알음 만나는 일도 꽤 있었거든요. 그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를 찾으러 왔다가 광장에서 그 형제를 보게 된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옷차림도 남루하고 꼴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아휴, 내가 안 보고 말지.” 이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찾아봐야 자기가 먹여 살리지도 못할 것 같아 힘들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멀리서 가족을 발견하고도 그렇게 외면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잘살고 있으면 만나서 도와주고 살면 되는데, 자기도 못 살고 찾은 가족도 뭐 얻어먹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러고 있으면 그냥 돌아서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우리 봉사 대원들은 나쁜 놈이라고 욕하기도 했어요. 몇 년 만에 만난 형제간인데 찾았으면 보고 가고 그래야지 그냥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딱한 노릇이었죠.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부대행사를 다 여의도광장에서 했어요.

내가 지금도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게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때의 일이에요. 아시안게임도 올림픽도 부대행사를 다 여의도광장에서 했어요. 내가 광장에서의 일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이 일이었어요. 특히 88서울올림픽 때 광장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각국의 기념관들이 설치됐는데, 마치 무슨 박람회 하는 것처럼 큰 행사로 치러졌어요.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천막을 쳐 놓고 각국의 전통 음식이나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했어요. 문화공연 같은 것도 하고 시식코너도 만들어서 각 나라의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 전 준비 기간이 있고 끝나고 나면 마무리도 해야 하죠. 그럴 때는 우리 영업도 전부 중단됐어요. 이런 행사 때마다 내가 우리 대원들에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나라에서 이 넓은 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일하라고 줬는데 우리가 그 땅값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요. 열흘, 보름 동안 이어지는 행사 기간 내내 억박지르고 달래면서 운영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 영업은 못하는 채로 행사 관리를 했죠. 돈 버는 일은 못 하고 나와서 봉사만 하는 거예요.



88서울올림픽 기간 여의도광장에서 치러진 '세계전통문화 및 음식축제' 모습

여의도광장이 여의도공원으로 바뀌었고 새마을봉사대는 해산하게 됐어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할 그 무렵이 우리 새마을봉사대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새마을 평지도자였던 1979년도부터 이 사업에 손을 대서 1982년 우리 새마을봉사대가 발족하고 활동을 해왔으니까 1980년대가 우리 봉사대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때는 정말 재미났어요. 안양·부천·남양주·의정부·수원, 이런 위성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광장에 모여서 놀았어요. 어른, 애들 할 것없이 말이죠. 그런데 광장이 여의도공원이 되면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조순 시장 때의 일이에요. 여의도공원이 조성된다고 했을 때 우리 봉사대가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대원들 생계가 걸린 일이니까요. 광장을 뺄 뺄수록 '공원 반대'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우리가 워낙 반대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생활 터전을 마련해준다고 했어요. 처음에 공원 조성 반대할 때 우리를 달래려고 광장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공원 안에 광장도 만들 거라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공원 안에 '문화의 마당'이라고 넓은 터가 생긴 거예요. 우리 대원들이 공원을 반대하면서 “전 세계에



광장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막 항의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다른 나라에 가서 광장을 다녀보니 우리 여의도광장처럼 아스팔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원 가운데 블록도 깔고 그렇게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웃음) 어쨌든 결국 여의도광장은 여의도공원으로 바뀌었고 우리 봉사대는 해산을 하게 됐어요. 지금 여의도공원에서 자전거 대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대원들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입찰을 해서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여의도공원 내 '문화의 마당'



여의도공원 내 자전거 대여점

##### 5. 셋강다리(셋강생태공원 문화다리)와 여의도

내가 구의원을 할 때 셋강다리를 놓자고 주장했어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시작할 적에 내가 처음으로 이 동네에서 구의원을 했어요. 내 지역구가 여의도는 아니고 영등포구 신길2동이에요. 그때는 지금 같은 정당 공천제도가 없었어요. 물론 정당 내부에서 추천을 하는 내천이라는 게 있었는데 나는 내키지 않아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4선 구의원으로 일할 때예요. 그때 신길동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셋강다리를 세워놨어요. 억지로 우겨서 만든 거예요. 영등포랑 여의도랑 사람들은 원래 왕래가 많아요. 그런데 셋강다리가 없었을 때는 대방다리를 이용하거나 영등포구청 로터리로 돌아서 여의도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 길은 찾길 때문에 사람이 진입하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내가 “바로 저 앞이 여의도인데 대방동으로, 영등포구청 로터리로 돌아서 다녀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언젠가는 연결하기로 계획한 셋강다리 설치를 지금부터 진행하자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구청에다가는 어차피 구 예산으로는 못 하는 사업이니 우선 연구용역을 주자고 요청을 해서 설계용역비 3억 6000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쫓았어요. 딱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 놔야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근거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상황을 보니 서울시가 예산을 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끌어보느라고 설계단계에서 일곱 번이나 퇴짜를 냈어요. “좀 예술적으로 해보라”고 해가면서.(웃음) 나중에는 영 퇴짜 놓은 말이 없어서 예술적으로 해보라고 한 거지만, 혹시 지나게 되면 한번 보세요. 샛강다리가 얼마나 멋진지, ‘S’자로 되어 있고, 아치로 되어 있고 밤에 보면 조명이 엄청 근사해요. 아마 여의도로 들어가는 다름 어떤 다리들보다 멋있을 거예요.



여의도공원의 모습

샛강다리 났다고 여의도 사람들이 데모를 했어요.

샛강이 지금 같은 모습을 갖춘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80년대 후반에 올림픽대로가 생기면서 정비를 한 거예요. 영등포랑 여의도를 연결하는 마포대교가 들어서고 나서는 그 양쪽 밑으로 노숙자들이 사는 집이 생겼어요. 다리 바닥 쪽으로요. 여름에는 다리 밑이 제일 시원하잖아요. 사람들이 마포대교 쪽 고수부지에 가면 다리 아래쪽에 가장 먼저 모이는 것도 그 때문이죠. 그때는 동네 사람, 외부 사람 할 거 없이 다리 밑에서 천렵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검문소 사람들도 와서 얻어먹고 그랬죠.

그런데 그 샛강다리 났다고 여기 여의도 광장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다음에 나 당선시키지 말라고 데모하고 그랬어요. 샛강에 다리를 놓으면 여의도 쪽으로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샛강에 다리가 생겨서 여의도로 넘어오기 좋게 만들면 광장아파트 쪽으로 노숙자들이 바로 넘어와서 거기서 진을 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데모를 했어요. 내가 구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예산 통과를 시켰지만, 셋강다리는 구의원을 그만두고 나서 완공됐어요. 막상 다리를 놓고 나니까 너도나도 그 다리를 자기가 났다고 해요. 임자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재밌는 일이죠(웃음)



신길동 방향에서 본 셋강다리



여의도 방향에서 본 셋강다리

## 6. 여의도에서 50년 회고

누가 나한테 여의도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지금은 여의도가 참 많이 발전했어요. 환경이나 교통도 옛날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과거의 여의도는 지금 보다는 삭막했지만 그래도 젊음의 광장이라고 할까요? 청소년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여의도광장에 안 가본 아이들은 노는 축에도 못 꺾어요.(웃음) 지금은 광장이 없어지고, 공원이 돼서 나무가 울창해졌죠. 그러면서 요즘 여의도공원은 놀이터라기보다 쉼터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여의도광장이 했던 역할은 지금은 한강 고수부지가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고수부지도 예전에 비해 정비를 잘 해놔서 사람들이 즐기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정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우리 대원들이 거기까지 다 관리를 했어요. 거기 잔디를 심어놨잖아요. 여름에 비 오고 나서 흙탕물이 쓸고 지나가면 황토가 이만큼씩 쌓였어요. 그럴 때 기왓장 뜨듯이 그걸 다 건져내야 다시 잔디가 자리거든요. 그 흙 떠내는 봉사도 우리가 다 했었죠. 요즘은 참 좋아졌어요. 거기서 뭐 먹지 말라고 해도 가서 술 먹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누가 나한테 여의도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의도광장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나이

30대였어요. 비록 내가 신길동에서 살고, 구의원도 신길동에서 출마했지만 지금까지 40년을 여의도와 함께하면서 여의도에서 생활을 해온 거예요. 새마을봉사대를 만들어서 우리 대원들이 지금까지 다들 범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는 것도, 마흔인 대원들 여럿 짝 지워서 동네 노인네들 모셔다가 국수 끓여놓고 광장에서 결혼식을 치렀던 것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략해요. 그때는 정말 법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사건사고도 많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광장에 와서 시끌시끌했지만 우리가 광장에 있는 동안에는 광장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영등포경찰서도 우리를 의지했어요. 지금 그때의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참 재미 나는 세상을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배 기 한

---

- 1947 경상북도 고령군 출생
- 1968 서울 신광동(현재 신길2동)으로 상경
- 1979 새마을 평지도자로 도시새마을사업의 일환인 새마을봉사대 사업 시작
- 1982 여의도광장 새마을봉사대장
- 1991~2006 제1·2·3·4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이 글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20년에 펴낸 『여의도, 방송과 금융의 중심지』 185쪽 여의도에서 50년 회고, 배기한 편을 발행처와 배기한 선생님의 양해를 구하고 전재(轉載)함.